

“金 분산 구매 권장...銀 변색 예방 밀폐 보관”

광주서구 '세큰대-17회우리동네일타강사'

지역주민 재능기부 배움나눔 강좌
20년 경력 문미진 주얼리숍 대표
'우리집 금 살리는 법' 주제 강연
내달엔 카네이션 활용 선물 제작



광주서구의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프로그램 중 하나인 '우리동네 일타강사' 17회차 강연이 열린 14일 오후 2시50분께 농성2동 복합청사 3층 나눔실에서 '뚝뚝하게! 우리집 금 살리는 법'을 주제로 열렸다. 사진은 서구 주민인 문미진 주얼리숍 광주점 대표가 강사로 나서 금 세척법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이연상 기자

“이 반지가 금일까요, 은일까요?” “지금 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광주 서구의 평생학습브랜드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세큰대)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우리동네 일타강사' 17회차 강연이 열린 14일 오후 2시50분께 농성2동 복합청사 3층 나눔실에서 서구 강생들이 잇따라 질문을 던졌다.
20여명의 서구 주민들은 귀금속 종류를 구별하는 법부터 세척과 보관, 최근 금값 상승에 따른 투자 방법까지 질문하며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강연 속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강연은 오후 2시부터 서구 주민이자 20년째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 문미진 스톤리주

얼리숍 광주점 대표가 '뚝뚝하게! 우리집 금 살리는 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문 대표는 금과 은의 특성과 차이, 골드바와 제품 금의 구별, 변색을 막는 관리 요령, 장기간 착용하지 않는 귀금속의 보관 방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은 제품은 산화로 색이 변할 수 있는 만

금 세척 후 밀폐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최근 금값 상승세에 따른 관심도 컸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금 투자 전망과 거래 방식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한 주민은 “금 투자에 관심은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사고팔아야 하는지, 또 어떤 종류의 금

을 사는 게 나은지 잘 모르겠다”며 궁금증을 드러냈다.
이에 문 대표는 “금은 한꺼번에 사기보단 자금 사정에 맞춰 분산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단순히 한 돈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세공비와 매입 조건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우리동네 일타강사는 특정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서구 주민이 강사로 나서 생활 속 노하우를 공유하는 배움나눔 프로그램으로, 2024년부터 운영됐으며 지금까지 313명의 서구 주민이 참여했다.
지난달 진행된 '아이와 함께하는 두바이 폰드 피자'와 지난해 열린 '피부 건강 지키는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연은 수강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형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음 달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주민들이 카네이션을 활용해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박현숙 서구 행복교육과장은 “우리동네 일타강사는 주민이 가진 다양한 재능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영암경찰, 왕인문화축제 '안전 체험존' 운영

영암경찰서는 “최근 영암왕인문화축제 행사장에서 범죄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체험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단순 안내를 넘어 실질적인 현장 참여 위주로 구성해 경찰 제복 착용 및 순찰차 기념 촬영, 음주 고글을 활용한 가상 음주 운전 위험성 체험 등이 진행됐다.
또 QR 코드를 연계한 보이스피싱 모의 체험과 예방 홍보물 배부, 피싱 사기 및 교통사고 예방 영상 송출이 이뤄졌으며, 아동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한 현장 지문 사진 등록 서비스와 실종 예방 문구가 삽입된 풍선 배부도 병행됐다.
박용 경찰서장은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 교육을 통해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맞춤형 밀착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호남대-광산경찰-광산구 '교통안전 캠페인'

호남대학교는 14일 교내 정문 일원에서 광산경찰서, 광산구청과 함께 '교통안전 및 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내·외 교통질서 확립, 각종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동우 학생처장을 비롯해 교직원, 총학생회, 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청소년보호계·외사정보계, 광산구청 교통행정과 등 60여명이 참여해 내·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캠퍼스내 주요 통행 구간에서 피켓과 홍보물을 활용해 ▲신호 준수 ▲보행자 우선 문화 정착 ▲음주·과속 운전 근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미약 및 보이스피싱·환치기 범죄 예방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동우 학생처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학생과 지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광주시, 감염병 예방학교 확대...대응체계 강화

광주시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감염병 예방학교'를 확대해 학교 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광주시는 14일 “지자체 3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감염병 예방학교를 올해 5개 초등학교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학교는 학령기 아동들을 중심으로 수두·성홍열 등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밀집 생활 공간인 학교 내에서의 신속·체계적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학교는 ▲감염병 예방학교 운영 협의체 구성·운영 ▲감염병 발생 감시·신속 대응 체계 구축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 ▲학교별 맞춤형 예방 활동 ▲학원장 대상 온라인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감염병 발생을 선제 예방한다.
광주시는 감염병 예방학교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 시청 세미나실에서 '감염병 예방학교 운영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학교는 학생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이자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감염병 예방학교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정서운 대표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202호' 등록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 사랑의 열매)는 14일 “전날 광주 사랑의 열매 나눔문화관에서 정서운 헤림 테이블 대표가 5년간 1억원 기부를 약속하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 가입으로 광주 202호이자 전국 3천93호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공사현장 식당을 운영하며 기업 활동을 이어온 정 대표는 헤림복지재단 이사, 헤림장학재단 감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부위원장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했다.
정서운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입을 결심했다”며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준 가족들의 사랑 덕분에 오늘과 같은 큰 나눔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제길 광주 사랑의 열매 회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나눔에 동참한 정서운 아너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의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 내 기부를 약속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이연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 나주호 환경정화 활동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 연계한 합동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14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에 따르면 최근 나주호 상류 다도면 돌레길 공원 일원에서 다도면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KRC(Korea Rural Community : 한국농어촌공사) 행복 충전 활동인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 활동에는 양 기관 임직원과 지역 주민 등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저수지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플라스틱 용기와 고무

매트, 스티로폼, 영농 폐기물, 낚시용품 등 각종 부유물과 생활 쓰레기 약 1t을 수거했다.
나주시사는 이번 환경정화 활동 외에도 올해 농번기 영농 일손 돕기, 취약계층 지원,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 참여 등 다각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주력할 방침이다.
류화열 나주시사는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농업용수 수질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공헌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정환 기자



동신대, 국제초음파자격시험 합격자 배출 '성과'

동신대 방사선학과가 국제초음파자격시험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
14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방사선학과 4학년 김성운(사진 맨 오른쪽) 학생이 미국 진단초음파 기술인증협회(ARDMS)가 주관하는 초음파 물리 분야 SPI(Sonography Principles and Instrumentation) 시험에 합격했다.
ARDMS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초음파 인증 기관으로, 국제 의료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SPI 시험은 초음파 물리학, 장비 설정, 혈액역학, 안전

성 및 품질 관리 등 진단 초음파의 핵심 원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필수 과목으로 꼽힌다.
SPI 합격자들은 향후 복부(Abdomen), 유방(Breast), 산부인과(OB/GYN), 심장(Adult Echo) 등 임상 분야별 전문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최종적으로 국제 인증 초음파사(RDMS) 취득 시 국내외 의료기관 및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중남 방사선학과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사선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적십자사, 완도 화재 사고 심리회복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14일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유가족과 조문객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전남재난심리회복센터는 사고 당일인 12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3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해당 활동가들은 유가족과 조문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심리적 응급처치(PFA)와 정서적 안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활동은 완도문화예술의전당 1층에 마련된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분향소에서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
최현정 대한적십자사 전남재난심리회복센터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조문객을 곁에서 정서적 지원과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